

글로벌 주식시장 변화와 전망

2021.6.10

가치주 부진 Vs. 성장주 강세

서상영 sangyoung.seo@miraeasset.com

미 증시 동향

- 미 증시는 인프라 투자를 둘러싼 마찰로 보험권 혼조세로 출발 했으나 캐나다 중앙은행의 온건한 통화정책 발표 및 미국 경제 정상화 기대에 힘입어 상승하기도.
- 건고한 입찰 등으로 국채 금리가 하락하자 금융주 및 경기 민감주가 약세를 보인 반면, 기술주, 제약 업종이 강세를 보이는등 다우지수와 나스닥의 엇갈린 행보도 특징
- 물론 CPI, ECB통화정책회의, FOMC 등을 기다리며 장 마감 앞두고 일부 매물이 출회 되며 하락 했으나 개별 종목과 업종의 차별화는 뚜렷하게 나타난 점도 특징
- 다우 -0.44%, 나스닥 -0.09%, S&P500 -0.18%, 러셀2000 -0.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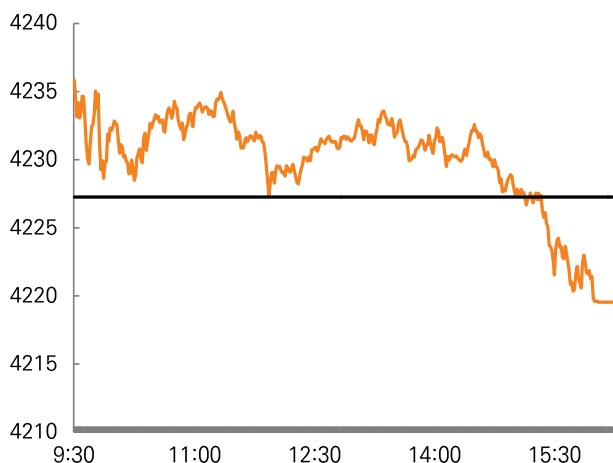
특이 종목

-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투자 협상을 중단한다고 발표로 인프라 관련주, 기계 업종 부진
- US 스틸(+3.60%)은 철도 및 운송 자회사인 Transtar를 매각 한다고 발표하자 급등
- UPS(-4.15%)와 페덱스(-3.13%)는 경제 정상화 후 성장 부진 우려로 하락
- 클린 에너지 풀스(+31.52%) Vs. 클로버 헬스(-23.61), 웬디스(-12.58%)
- 로즈타운모터(+0.09%)은 재정 악화 우려로 장중 20% 넘게 급락하다가 자금 조달 위한 협상으로 15% 가까이로 상승 전환 성공하는 등 변동성 확대 후 강 보합 마감

한국 증시 전망

- MSCI 한국 지수 ETF는 1.25% MSCI 신흥 지수 ETF는 0.29%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16.67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보합 출발 예상. Eurex Kosp200 선물은 0.04% 상승. KOSPI는 강보합 출발할 것으로 예상.
- 미국 국채 금리가 하락 했는데 이는 5월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가 더욱 가속화 되더라도 다음주 FOMC에서 테이퍼링 시사는 쉽지 않음을 말하기 때문에 한국 증시에 긍정적
-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만기일 외국인 선물 동향에 따라 변화가 예상되지만 증시 주변 여건이 긍정적인 요인이 많아 되돌림에 따른 반등이 예상. 다만 전일에 이어 오늘도 마이크론(-2.32%)의 하락이 지속 돼 반등은 제한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Global Indices

지수등락률	Close	D-1	지수등락률	Close	D-1
KOSPI	3,216.18	-0.97	홍콩항셍	28,742.63	-0.13
KOSDAQ	978.79	-0.74	영국	7,081.01	-0.20
DOW	34,447.14	-0.44	독일	15,581.14	-0.38
NASDAQ	13,911.75	-0.09	프랑스	6,563.45	+0.19
S&P 500	4,219.55	-0.18	스페인	9,156.10	+0.03
상하이종합	3,591.40	+0.32	그리스	913.34	-0.02
일본	28,860.80	-0.35	이탈리아	25,741.75	-0.26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글로벌 투자 파트너-

MIRAE ASSET
미래에셋증권

 변화 요인

① 미국 국채 금리 변화 ② 엇갈린 가치주와 성장주

지난해 팬데믹 이후 많은 국가는 유동성을 공급하며 경제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해왔음. 현재는 백신 접종 속도가 확대되며 경제가 정상화 되는 과정과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브라질 등 일부 신흥국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금리를 인상하고 있으며 캐나다에 이어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금리인상 시점을 앞당김. 더불어 BOE와 ECB 일부 위원 또한 유동성 축소 등을 주장.

그래서 오늘 있었던 캐나다 통화정책회의가 중요. 지난 4월 캐나다 중앙은행은 QE 규모를 주당 30억 캐나다 달러로 축소 했고 금리인상 시점을 내년 하반기로 앞당기는 등 매파적인 내용을 발표했기 때문. 시장 일각에서는 오늘 통화정책 회의에서는 지난 4월 발표와 다르지 않겠지만 일부 매파적인 내용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 했었음. 그러나 이날 발표가 지난 4월과 다르지 않자 강세를 보이던 캐나다 달러는 약세로 전환했고 캐나다 국채 금리도 하락 전환

한편, 미국 10년물 국채 입찰에서 응찰률이 12개월 평균(2.40배)을 상회한 2.58배, 간접입찰도 12개월 평균(60.5%)을 상회한 65.0%를 기록하는 등 채권 수요가 강한 모습. 내일 발표되는 5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4.6%로 지난달 발표치(yoy 4.2%)를 웃도는 등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에도 채권 수요가 크게 증가한 것. 이는 연준이 주장하고 있는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볼 수 있음. 결국 캐나다 통화정책과 미국 국채 입찰 결과로 10년물 국채 금리가 장중 한 때 1.47% 초반까지 하락. 이러한 금리 하락으로 미국 금융주와 산업재 등은 매물이 출회되며 약세를 보인 반면, 기술주와 바이오 업종은 강세

최근 주식시장 참여자들은 관망세를 보이는 가운데 종목, 업종 이슈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경향. 그러다 보니 가치주와 성장주, 금융과 기술주, 낙관론과 비관론 등 빠른 순환매가 특징으로 작용. 이런 시기 수익은 생각보다 뚜렷하지 못하고 매매에 신중함을 보이지 않을 경우 쉽지 않은 시장이라고 볼 수 있음.

어제만 해도 백신 접종 확대 및 여행 등급 조정 등으로 관련 경기 민감주의 강세가 뚜렷했으나 오늘은 대부분 약세를 보이는 경향. 반면, 최근 일부 개별 이슈가 있었지만 백신 접종 이후 코로나 관련 매출 감소 가능성이 부각되며 약세를 보여 왔던 제약, 바이오 업종이 강한 모습. 이는 주식시장뿐 아니라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장은 물론 곡물 등 상품 시장에서도 뚜렷.

이러한 빠른 순환매는 결국 시장의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거나 자신감이 높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음. 보통 이런 경우 실적이 뚜렷하게 개선되는 종목군, 향후 산업의 트렌드를 이끄는 업종군 등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음. 결국 방향이 결정되게 되면 관련 종목군이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오늘 미 증시에도 이러한 종목군이 도드라진 모습은 아니지만 견고한 모습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제약, 바이오 강세 Vs. 금융주, 인프라 관련주 부진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 투자 협상을 중단한다고 발표하자 US 콘크리트(-0.62%), 콘크리트 펌핑(-2.99%), 캐터필러(-2.29%) 등 인프라 관련주가 약세. 반면, US 스틸(+3.60%)은 철도 및 운송 자회사인 Transtar를 매각 한다고 발표하자 급등. 이는 회사 운영 초점인 'Best for All' 전략에 따라 핵심 채광 및 제강 사업에 더 집중함을 의미해 향후 수익 개선 기대를 높인데 따른 것으로 추정. 물류회사인 UPS(-4.15%)와 페덱스(-3.13%)는 경제 정상화 이후 성장에 대해 실망스러운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급락. JP모건(-1.25%) 등 금융주는 국채 금리 하락 여파로 부진. 화이자(+2.47%)는 바이든 행정부가 전 세계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5억개의 백신을 구입한다고 발표하자 강세. 레제네론(+3.05%), J&J(+1.35%) 등 백신 관련주도 동반 강세

클린 에너지 풀스(+31.52%)는 레딧에서 언급이 크게 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급등. 한편, 클로버 헬스(-23.61), 웬디스(-12.58%), AMC엔터(-10.37%) 등은 클린 에너지로 관심이 집중되자 급락. GM(-1.80%)이 투자한 전기 트럭 제조업체 로스타운모터(+0.09%)은 재정 악화에 따른 사업 계속 유지 불가능 이슈가 부각되자 장중 20% 넘게 급락하다가 자금 조달을 위해 여러 당사자와 협의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15% 가까이로 상승 전환 성공하는 등 변동성 확대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0.55%	대형 가치주 ETF(IVE)	-0.32%
에너지섹터 ETF(OIH)	-0.97%	중형 가치주 ETF(IWS)	-0.60%
소매업체 ETF(XRT)	-0.77%	소형 가치주 ETF(IWN)	-0.66%
온라인소매 ETF(IBUY)	-1.31%	대형 성장주 ETF(VUG)	+0.02%
금융섹터 ETF(XLF)	-0.94%	중형 성장주 ETF(IWP)	-0.21%
기술섹터 ETF(XLK)	+0.07%	소형 성장주 ETF(IWO)	-0.54%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0.15%	배당주 ETF(DVY)	-0.30%
인터넷업체 ETF(FDN)	-0.36%	신흥국 고배당 ETF(DEM)	+0.17%
리츠업체 ETF(XLRE)	+0.11%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0.15%
주택건설업체 ETF(XHB)	-1.46%	미국 국채 ETF(IEF)	+0.31%
바이오섹터 ETF(IBB)	+1.54%	하이일드 ETF(JNK)	+0.10%
헬스케어 ETF(XLV)	+0.97%	물가연동채 ETF(TIP)	+0.01%
곡물 ETF(DBA)	-0.26%	Long/short ETF(BTAL)	+0.75%
반도체 ETF(SMH)	-0.31%	모멘텀 ETF(MTUM)	-0.82%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415.56	-0.56%	+0.82%	+5.45%
소재	540.58	-0.76%	-1.66%	-1.93%
산업재	875.44	-1.03%	-1.37%	-0.32%
경기소비재	1,372.46	-0.46%	+0.03%	-0.44%
필수소비재	722.05	-0.43%	-0.62%	-0.30%
헬스케어	1,434.66	+1.00%	+1.70%	+0.19%
금융	625.81	-1.06%	-1.45%	+1.58%
IT	2,457.32	+0.06%	+1.05%	+3.57%
커뮤니케이션	259.06	-0.15%	+0.72%	+2.98%
유틸리티	330.82	+0.85%	+0.50%	-1.12%
부동산	282.61	+0.16%	+1.51%	+7.60%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한국 주식시장 전망

되돌림 현상 유입 기대

MSCI 한국 지수 ETF는 1.25% MSCI 신흥 지수 ETF는 0.29%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 물은 1,116.67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보합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04% 상승. KOSPI는 강보합 출발할 것으로 예상.

지난 4~5월 MSCI 한국 지수 ETF인 EWY에서 약 1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이탈. 이러한 추이는 해당월에 외국인의 대규모 순매도를 촉발 했고, 특히 반도체 업종 등 대형 종목 중심으로 매물이 집중. 그렇지만 글로벌 경제 정상화 기대가 여전히 부각되며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강세를 보여 4~5월 KOSPI는 4.7% 상승해 여타 국가에 비해 나쁘지 않은 모습

그런 가운데 최근 시장은 미국 5월 CPI(10일), ECB 통화정책회의(10일), FOMC(16일)를 기다리며 관망세가 짙은 가운데 개별 종목 및 업종 변수에 따라 차별화가 진행되는 종목 장세가 펼쳐지는 경향.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인 수급의 집중은 개별 종목, 지수 변화를 확대 시키는 경향

전일 한국 증시는 견고한 미국 경제 정상화와 양호한 중국 물가 지표 등으로 차익 매물을 소화하며 약보합까지 반등하기도 했으나, 오후 들어 외국인이 대규모 선물 매도를 일시에 내놓자 대형주 중심으로 매물이 출회되며 1% 가까이 하락하며 마감. 이는 새로운 이슈가 발생했다기 보다는 선물옵션 만기일 앞두고 청산 및 롤오버 등 수급 불균형에 따른 결과로 추정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국 증시는 전일 일시적인 수급 요인에 의해 부진했던 흐름을 뒤로하고 되돌림 현상이 유입되며 반등이 예상. 특히 미국 국채 금리가 하락 했는데 이는 오늘 저녁 발표되는 5월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가 더욱 가속화 되더라도 다음주 FOMC에서 테이퍼링 시사는 쉽지 않음을 보여준 것. 이는 한국 증시 투자 심리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만기일 외국인 선물 동향에 따라 변화가 예상되지만 증시 주변 여건이 긍정적인 요인이 많아 되돌림에 따른 반등이 예상. 다만 전일에 이어 오늘도 마이크론(-2.32%)의 하락이 지속 돼 반등은 제한

주요 경제지표 결과

중국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

미국 4월 도매재고는 지난 달 발표(mom +1.2%)를 하회한 전월 대비 0.8% 증가에 그쳐 시장 예상과 부합

중국 5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1.3%를 기록해 예상(yoy +1.6%)을 하회. 이는 돼지고기 가격 하락에 따른 것으로 추정. 반면, 5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9.0% 상승해 예상(yoy +8.5%)을 상회 했는데 항공 등 경제 정상화 관련 품목의 급등에 따른 것으로 추정

”
상품 및
FX시장 동향
”

미국 국채 금리, 채권 수요 증가로 하락

국제유가는 EIA가 지난 주 원유 재고에 대해 524만 배럴 감소 했다고 발표했으나, 가솔린 재고가 704만 배럴 급증하고 정제유도 441만 배럴 증가 했다는 소식에 소폭 하락. 대체로 원유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가격 부담 등도 매물 출회 요인. 한편, 인도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10만건에 그치는 등 개선되는 경향을 보인 점도 하락 제한 요인

달러화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여타 환율에 대해 소폭 강세. 캐나다 달러는 강세를 보이다가 통화정책 회의 이후 달러 대비 약세로 전환. 한편, 역외 위안화 환율은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지만 브라질 헤알화와 멕시코 페소화는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이는 등 혼조 양상

국채금리는 미국 10년물 국채 입찰에서 응찰률이 12개월 평균(2.40배)를 상회한 2.58배, 간접입찰도 12개월 평균(60.5%)를 상회한 65.0%를 기록하는 등 채권 수요가 강한 모습을 보이자 하락. 더불어 캐나다 통화정책회의에서 매파적인 정책 변화 가능성이 약화된 점도 하락 요인

금은 소비자물가지수 발표 앞두고 소폭 상승. 구리 및 비철금속은 달러 강세 및 경제 정상화 기대가 충돌하며 혼조양상. 곡물은 옥수수가 바이오 에탄올 생산 증가 소식에 힘입어 상승 했으나, 대두와 밀의 경우는 주요 작황지에 비가 내려 생육에 대한 기대가 양호한 모습을 보여 하락.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1.03%, 철근도 1.07% 상승

주요 상품	증가	D-1(%)	D-5(%)	주요 통화	증가	D-1(%)	D-5(%)
WTI	69.96	-0.13	+1.64	Dollar Index	90.150	+0.08	+0.27
브렌트유	72.22	0.00	+1.22	EUR/USD	1.2177	+0.03	-0.28
금	1,895.50	+0.06	-0.75	USD/JPY	109.63	+0.12	+0.06
은	28.002	+0.98	-0.72	GBP/USD	1.4112	-0.32	-0.42
알루미늄	2,458.50	+0.24	+0.59	USD/CHF	0.896	-0.09	-0.21
전기동	9,978.50	+0.15	-1.67	AUD/USD	0.7731	-0.14	-0.30
아연	3,019.00	+0.08	-2.06	USD/CAD	1.2113	+0.02	+0.65
옥수수	609.75	+0.04	+6.46	USD/BRL	5.0648	+0.61	-1.69
밀	682.25	-0.40	-0.76	USD/CNH	6.3869	-0.20	+0.06
대두	1,448.25	-0.60	+2.44	USD/KRW	1115.40	+0.11	+0.19
커피	159.30	-0.34	-2.36	USD/KRW NDF1M	1116.67	-0.06	+0.52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미국	1.487	-4.57	-10.01	스페인	0.401	-2.90	-5.20
한국	2.100	-1.20	-9.50	포르투갈	0.400	-2.80	-4.70
일본	0.069	-0.90	-1.40	그리스	0.826	-3.00	+1.80
독일	-0.244	-2.00	-4.60	이탈리아	0.828	-3.30	-4.90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미래에셋증권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